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4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얼음 깨기

이름을 불러줄 때

교회행사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 속에 서 있는데 누군가 멀리서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

그 순간 사람들은 많지만 자신을 부르는 그 한 사람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누가 부르는지 바로 알게 됩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알고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 주어서 기쁘거나 위로가 되었던 경험이 있나요?

4월

5일	부활주일
18일	신중년 아유회
24-25일	목자 수련회

5월

3일	어린이주일 / 오렌지데이
10일	어버이주일 /
	더가족세미나 5기 개강
23-24	더함공동체 여름수련회
30일	어와나 지역 올림픽
31일	더가족세미나 5기 종강

경배 찬양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둔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 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후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선교

[전준선 선교사]

나미비아

1. 나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온전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2. 에로스 여중 고등학교에 하나님께서 주신 주인이 되어주시도록.
3.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
4. 나미비아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소식

1. 캄보디아 단기선교팀 모집

오는 8월 15일(토)-21일(금)까지 캄보디아 라타나끼리 주(프놈펜에서 10시간 거리, 베트남 접경지역)에서 진행될 의료, 미용, 어린이 사역에 동참하실 성도들을 선착순으로 30명 모집합니다.

문의 : 김지훈 목사 010-5025-1824

2. 선교학교 학생모집

더비기닝 선교학교의 심화과정으로 진행되는 2026 더깊은 선교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더비기닝 선교학교를 수료하신 분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30명 모집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문의 : 이흥기 목사 010-5494-1413

한 문장 큰 울림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녀의 믿음이 깨어났다”

-존 칼빈-
(John Calvin)

[요한복음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부활의 첫 아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환호와 기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혼란과 절망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절망 속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1. 부활의 아침은 영적인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무덤에 간 이유는 단지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어 급하게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향품을 가지고 가서 시신을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요 20:2) 마리아는 부활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판단은 시신 도난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실제로 무덤 도굴이 흔했습니다. 시신을 감싼 세 마포를 얻기 위해 무덤을 파헤치는 일이 많았고, 심지어 시신의 일부를 미신적인 의식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무덤을 도굴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칙령까지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라고 생각하며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여전히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만 일상 속에서는 쉽게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부활의 아침은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까?

2.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떠나지 못하고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마리아는 천사를 보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셨지만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깨닫습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고 천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알아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마리아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구절이 마음에 깊이 들어오고 삶을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의 길을 비추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말씀하신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3. 부활을 만난 사람은 증인이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본 후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니를 붙들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가서”입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전하라.” 마리아는 결국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처음에는 절망 속에서 울던 사람이 이제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눔] 부활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듣거나 전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듣거나 전했을 때는 어땠나요?

부활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변화 이야기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눔

[어둠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 요한복음 20장 1-18절]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 점을 나눕니다.

함께 하나님나라를 세우기며 말씀을 비추하고 기도를 쌓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주의 음성을 듣는 삶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감동과 깨달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공동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